

상담을 통해 본 남성의 가정생활 문제와 해결책

- 1995~2005년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이 옥 이(한국 남성의 전화 소장)*

I. 1995~1996년: 흔들리는 가정들-아내 가출, 이혼

아내의 가출 때문에 고민하는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늘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주부 가출의 주 원인이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 고부갈등이었다. 그러나 요즘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못 참거나 주부의 신용카드 빚, 맞벌이 아내의 외도, 가정에서의 인터넷 채팅을 통한 탈선 등 때문에 집나가는 30대-40대 여성이 대부분이다.

(95년-96년 상담통계) 3,400명 중 부부갈등 1,236명, 아내 가출·이혼 839명, 가정문제 315명, 이성 302명, 결혼·재혼 286명, 인생 159명, 성문제 107명, 자녀 65명, 직장 56명, 기타 33명

* 학력- 대졸 1,241명, 고졸 1,918명, 중졸 193명, 초졸 48명

* 연령- 40대 1,568명, 30대 1,274명, 50대 407명, 20대 27명, 60대 59명, 10대 57명, 70대 8명

II. 1997년

1. 40-50대 명퇴, 직장(공포증), 가정-위축, 고개 숙인 아버지, 노년이혼
: 이혼 당하는 남성이 많다.

*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 당하는 남성들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남성의 고민으로 가정문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직장, 이성, 결혼, 인생문제 순으로 상담 전화가 온다. 또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추세로 이는 전반적으로

* <http://manhotline.or.kr> 한국 남성의 전화 (02) 2652-0456
가정폭력상담전화 (02) 2652-0457
www.ehonline.or.kr 위기가정상담전화 (02) 2652-0458
E-mail: mhline@hanafos.com

젊은 남성들의 학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부부문제는 학력과도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한 지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중년 부부들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상담전화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 대는 남자 40대 초반과 여자 30대 중·후반이다. 서로에 대해 웬만큼 익숙해지고 아이들도 자라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갈 즈음에 여성들의 이혼요구에 의해 남성들은 고민한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난 이후, 특히 97년에는 실직한 남편들이 아내가 요구하는 이혼 요구에 당황해서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또한 남성의 경제력이 없어지자 직장을 얻은 아내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다면서 도움을 구하는 전화도 많아졌다. IMF 이후로 이혼 당하는 남성상담이 늘었다.

2. IMF 명예퇴직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늘어났다.

96년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퇴직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늘어났다. 연령적으로는 40대가 많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주로 40대이기 때문이다.

이혼문제로 고민하는 사례: 40대- 3백56명, 50대- 62명

이혼문제의 원인(40대): 부인의 외도(174명), 가출(58명), 남편의 무능력(40명), 외부중(28명), 아내의 폭언(18명), 아내의 늦은 귀가(15명), 아내의 부채(12명), 무관심(11명)

이혼문제의 원인(50대): 외도(24명), 성격차이·폭언(21명), 가출(17명)

* 상담내용을 보면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

— 황혼이혼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가장이 어떤 이유로든 직장을 잃게 되거나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면 가정에는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소득의 담당자였던 남성은 경제력 상실과 함께 가정 내에서의 권위도 함께 잃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가정 내의 여성 발언권이 높아진다.

남성의 퇴직 전과는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때로는 여성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집은 내가 벌어서 유지 된다」며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을 당한 남편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 든다」라고 호소한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남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많은 경우 남성들은 아내의 늦은 귀가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런 남성들의 불만을 잔소리로 여기고 불화가 시작된다.

상담소에 전화를 한 남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외도문제를 호소하는데 외도문제 또한 남성의 경제력 상실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

면 남편 이외의 남성들을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가출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외도는 그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지만 아직도 여성의 외도는 죄악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가출을 한 여성들은 대개 밖에서 이혼요구를 하고, 남성들은 용서할 테니 들어오라며 승강이가 시작 된다.

— 이혼요구를 당한 남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거의 모든 남성들은 우선 가정의 파탄을 피하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식문제다. 남성들은 자식만 아니면 이혼을 해 주겠다고 말한다. 또 배신감을 호소한다.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직장생활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졸지에, 혹은 나이가 차서 직장을 잃고 가정의 평화마저도 잃게 된 피해자들이다. 평소 가정생활에 충실치 못했던 가해자 남편들은 심리적으로 상담전화를 하지 못한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이다.

— 황혼이혼이 남성들의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의식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가정불화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여성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남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95년 전에 시작됐다.

상담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상담하다 보면 여성이 이혼을 요구해도 남자가 끈질기게 버티면 여성이 돌아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남성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발생했을 때 여성들이 기다려 주면 남성들이 본처에게 돌아오듯이 여성들의 경우도 돌아온다. 남성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힘들면 상담하면서 장기전을 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남성들의 정년 혹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이혼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전망과 해결 방법은?

앞으로도 퇴직 후에 발생하는 이혼은 늘어날 것이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명예퇴직은 줄여야 한다. 그러나 중년에 이혼하는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가정 내부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퇴직이혼 혹은 황혼이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퇴직 후에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따라서 퇴직 후의 가정불화를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가정경제를 남성과 여성이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먼저 남성들이 평소 아내와 자녀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성의 심적인 갈등을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남성들이 알아야 한다. 여성은 질적인 생활을 원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다 하더라도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어려운 생활도 즐겁게 꾸려나간다는 말이다. 남편들이 평소에 부인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정의 남편이나 남성과 비교하고 불만이 쌓여간다.

* 부부간 대화하면 문제 절반은 해결

부부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문제의 절반이 해결된다. 남편과 아내가 찾아와 상담을 받으면 이혼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아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실과, 아내의 행복에 가정의 행복이 달렸음을 깨우쳐야한다. 시댁이나 자식과 관련해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애정표현과 돈 문제에서 인색해선 안 된다고도 한다.

III. 1998~1999년: IMF ‘가정 파괴범’- 수많은 가정을 흔들었다.

1997년 말 이후 아내가 대화를 기피하고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남편들 전화가 부쩍 늘었다. IMF 위력 앞에서 ‘사랑만이 전부’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했다.

IMF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순기능역할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긴 하다. 언제 이혼을 요구당할지 두려운 남편들은 부인들에게 더 잘 대해준다. 주중에는 직장에 매달려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가족과 지낸다.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안식처는 가정밖에 없다는 인식이 남편들 사이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아내들도 위축된 남편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IMF체제는 가정을 흔드는 동시에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무게 중심은 점차 ‘직장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평생직장은 없지만 평생가정은 있기 때문이다.

IV. 2000년

1. 주부들의 인터넷 채팅사례

인터넷 채팅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주부들에게 낯선 이국땅의 언어였다. 불과 몇 년 사이 인터넷은 주부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는 말처럼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는 유용성 못지않게 탐닉이란 독버섯이 자라고 있다.

아내의 채팅중독을 호소하는 남편의 상담전화는 2000년도 42건의 2001년도에는 128건으로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다. 특히 주부 채팅은 불륜으로 발전하거나 이혼 결심 주부 가출의 원인이 되는 등 가정 파괴의 주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팅하는 주부들은 대개 대인관계가 드문 내성적인 여성들이다. 스트레스도 해소되지만 남편하고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하면서 그 매력에 빠져 든다. 채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서 불륜의 관계로까지 발전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미혼 연하남성이 많아 직업도 변변치 못하다.

부인들이 남편 몰래 카드를 쓰고 돈도 빌려주고, 남편이 알게 되면 대개 가출해 이혼을 요구한다. 여성도 그 결말이 좋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채팅으로 인한 주부 가출, 가정불화가 급증하고 상담소에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남성들에게 인터넷 채팅에 빠져 드는 주부들은 사회활동이 없고 조용한 성격의 30대 전업주부들이 대부분이다. 평소 아내에게 관심 같고 운동 스포츠 문화생활을 하도록 유도 하라고 권한다.

2. 매 맞는 남편들 사례- 가정폭력도 남녀 평등시대(?)

남성들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 * 2000년 한해 상담 결과를 보면,
 - 상담자 2000명 중 - 아내의 정신적 학대 및 신체적 폭력 600명 중
 - 폭력의 원인 - 남편의 실직 및 퇴직 336명
 - 아내 외도와 외박 도박 153명
 - 성격 갈등과 의부증 62명
 - 경제적 어려움 21명
 - 아내의 음주 16명
 - 재혼 후 갈등 12명

연령 - 40대 310명, 30대 154명, 50대 104명, 20대 20명, 60대 12명

학력 - 고졸 260명, 대졸 236명, 중졸 95명, 국졸 9명

V. 2001년

1. 한국의 40대 남성 이혼

어린 시절, 아버지는 하늘같은 존재였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고 보니 회사에선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판국이고 월급통장을 움켜쥔 마누라로부터는 애들 과외비 대기도 빠듯하다는 편잔을 들으며 쥐꼬리 같은 용돈을 얻어 쓰고 있다고 한 40대의 하소연이다.

전통적인 가부장권의 붕괴에 대한 한국 남성의 의식이 짧은 기간 내에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남성도 상당수다. 특히 갈등과 괴리감을 느끼는 연령대는 40대 이상이다. 어려서부터 사회적-제도적-교육적으로 남성 중심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탓이다.

남성들 대부분은 자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외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상담통계에 따르면 이혼상담은 40대가 가장 많고 5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의 경우 맞벌이나 부업 등으로 아내의 경제권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한 반면, 남편의 가부장적 인식에 따른 아내의 직업 활동에 대한 구속과 간섭, 그리고 경제권 억압은 여전히 남아 부부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40대 가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 지금 내 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 등,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다.

50대 이상은 가부장적 남편과 순종적 아내라는 부부 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이른바 '386세대'는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맞벌이를 당연시하고 가정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기퇴직이 일반화하면서 끔찍한 '황혼이혼' 가능성을 상상하며 몸서리쳐보지 않은 중년남성이 얼마나 될까. '권위적인 남편'과 '복종하는 아내'라는 고전적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빛이 바랬지만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몰락'은 밑바닥부터 진행되고 있다.

2. 이혼남성 자살 확률

- 남성의 전화에는 하루 수십 여 통씩 이혼상담 전화가 걸려온다. 물론 전화를 건 사람은 대부분 위기의식을 느낀 남성이다.

남성은 이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일에 파묻힌다. 그리고 속도광처럼 난폭하게 운전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노래를 끊임없이 듣는다. 일부는 범죄를 저지르고, 스포츠에 몰입하고,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 와중에도 남성은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자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남성은 쉽게 좌절한다. 이혼 남성이 보통 남성보다 자살할 확률이 5배정도 높은 것은 그 때문이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남성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담소에서는 충고한다. 우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가족과 자주 어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학 기초 서적을 보고, 때때로 아내에게 문화 체험 기회(질적인 삶)를 제공하라고 한다. 그래도 아내의 눈치가 이상하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라. 이때 아내와 동행하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혼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아내대로 할 일이 있다. 남편이 무능하고 불만족스럽다고 어느 날 갑자기 '폭탄선언'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남성에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또 남편이 지나칠 정도로 돈을 못 쓰게 해 갈등을 빚다가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재산분할권이 인정되면서 여성이 30~50%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남성들이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이혼을 요구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남편 쪽에선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아내가 완강하기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

또 아내가 각방 사용을 요구해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남성들이 겪는 고통중 하나라고 본다.

□ 문제해결방법- 부부간 대화하면 문제 절반은 해결

남편과 아내가 찾아와 상담을 받으면 이혼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부부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문제의 절반이 해결된다.

부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회의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다면, 남편은 아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사실과, 아내의 행복에 가정의 행복이 달렸음을 깨우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댁이나 자식과 관련해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애정표현과 돈 문제에서 인색해선 안 된다고도 한다.

VI. 2002년

1. 매 맞는 남편들 사례

아내에 의한 폭력을 호소한 사례가 1,144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2,775건의 41.2%에 2000년도 비해 47% 증가했다.

칼에 베이거나 다리뼈가 골절돼 깁스를 한 채 찾아오는 남편도 있다. 매 맞는 남성은 대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지만 가정에는 충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여성들은 대외적으로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한 상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남편들 역시 매 맞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문제와 직장, 사회적인 명예 등 때문에 문제 공개나 이혼을 주저한다. 특히 아내의 폭력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면 오히려 못한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는 남편이 늘어나면서 남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아내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은 깨진지 오래이다.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남자를 때리겠냐 거나 남자가 여자한테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냐는 막연한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잘못된 선입견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 남성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꼭 신체적인 부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확대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매 맞는 남편',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데... 라는 식으로 웃고 넘어가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지난 95년부터 남성의 전화에 걸려오는 상담건수의 70%이상이 부부간의 문제이며, 이중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이다. 남자들이 상담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훨씬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가정에서 남편이 당하는 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폭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소한 일에 대한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거나 방치했다가 습관적인 폭력이 돼 이혼에까지 이르는 점, 이혼을 청구 당하는 폭력 가해자 여성들과 남성들 대부분 이혼을 거부한다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아내에게 맞는 남편은 육체적으로 외소하며 소극적인 성격의 유형 이 많다.

□ 매 맞는 남편 갈수록 증가 할 듯

대부분의 '매 맞는 남편'은 사실을 참고 숨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여자한테 맞나 라는 주변시선이 부담스러워 문제가 커지더라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한다.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알려주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지만, 실제 실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경찰이 출동해도 집이 난장판이 돼있고 남편이 상처를 입었고 아내가 울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대부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보기 쉽다. 또한 '설마 여자가 남자를 때렸겠나' 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남편이 폭력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도 아내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남편이 있다. 폭력을 당하는 남성의 경우, 다소 체구가 작은데다 내성적이고 성실한 유형이 대부분이며, 아내는 상대적으로 팔팔하고 직선적인데다가 체구도 남편보다 큰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 때리는 아내의 경우,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자랐거나 부모가 폭력적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자란 경우, 자기도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더구나 매 맞는 남편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폭력 당한 사실을 바깥으로 밝히기를 꺼려 문제해결이 늦고,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소수이기 때문에 하소연하거나 보호해주는 기구가 적어 어려움이 크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서운 아내들의 나이는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30대가 늘어났으며, 20대도 50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났다.

또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추세로 이는 전반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부부문제는 학력과도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 50대 노후대책 아내부터 챙겨라

아내에게 이혼 당하는 중년 남성들이 늘고 있다. 남성들이 이혼을 통해 여성을 '쫓아냈던' 10여 년 전과 달리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년여성들의 주요 갈등요인은 성격 불일치, 생활무능력, 애정상실, 대화단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주 이혼사유가 남편의 외도나 폭행이었던 것과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복에 겨워서...' 라는 식으로 매도될 이유지만 여성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과거처럼 참아내지 않게 된 것이다. 남성이 실직을 한 가정이나 주식투자로 돈을 날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남편이 지나칠 정도로 돈을 못 쓰게 해 갈등을 빚다가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재산분할권이 인정되면서 여성이 30~50%의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남성들이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이혼을 요구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남편 쪽에선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아내가 완강하기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 또 아내가 각방 사용을 요구해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남성들이 겪는 고통중 하나다.

■ 아내의 외도나 알콜중독 등과 같이 아내 쪽에 원인이 있어 남편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직장인 K(51)씨는 아내의 외도로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

아내가 외출이 심해지면서 자주 늦고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아이들을 버리고 급기야 집을 나가선 이혼을 요구한다. 아내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다.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를 설득하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다.

■ 이혼 왜 느냐- 여성들이 이혼을 망설였던 원인이 하나 둘 해소되고 있는 것이 중년이혼 증가의 첫째 이유다. 이혼녀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냈던 것은 이제 과거의 얘기다. 이혼을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축복해주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가정을 지키려고 아내를 설득하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다.

이혼을 요구받는 남성들 중엔 왜 아내가 이혼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다. 본인은 잘해왔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서 웃기고 있다'는 식이다. 특히 50대가 넘는 중년 이혼의 경우엔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온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관계가 좋았는데 실직했다고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 막을 수 없나- 중년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남성들의 사고가 변해야 한다. 남성들이 50~60년대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제 몫 찾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혼을 예방하려면 부모나 남성중심의 가정에서 부부중심의 가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남성들이 직장일 못지않게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가정의 문제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아내와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눠야 부부간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황혼이혼, 퇴직이혼 문제점

40~50대 실직이나 퇴직이 늘면서, 여성이 평생 지냈던 불만이, 남편의 경제적 비전이 없어졌을 때 일방적인 이혼 요구로 나타나는 것 같다. 이혼을 안 해 주면 아내가 남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91년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이 법제화되면서 이제 '황혼 이혼'도 우리사회의 한 풍속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물론 남성의 책임도 크다. 남편들은 그저 직장생활이나 잘하고 성실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막연한 생각들을 한다. 남성의 의식에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가부장적 고정관념의 틀에서 허우적대는 고지식한 사람도 많다.

외도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과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들을 대부분 한다. 부인과 대화 시간을 늘리고 공통의 화제나 취미를 갖는데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남성의 몰락'은 막기 어렵습니다.

3.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고민하는 남성들 상담

남성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강간이나 혼인빙자간음 등과는 달리 직장 내 성희롱에서는 남성들도 제도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상담 전화 중 성희롱 문제로 요청받은 직장남성은 모두 127명으로, 이 중 26명(10%)의 남성이 직장 내 여 상사에게 성관계를 요구 받았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발설을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 성희롱은 주로 여성들이 많은 직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유형면에서 남성성희롱과 여성성희롱은 큰 차이가 없다.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신체 부위를 건드리는 행위, 음란물을 보여주며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 상사라는 지위를 무기로 부하 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여성에 의한 성희롱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가해자들이 성희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성

적으로 개방된 것이 이유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성 이데올로기를 강요받는 남성 피해자들은 동료 남성에게도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이라는 질책을 받거나, 자학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남성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VII. 2003년

1. '장모와 사위' 갈등

사위는 백년손님 처가와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건 옛말이 돼가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늘면서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있으며 달라진 부부 관계가 사위와 처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처가에서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리적으로 친가보다 처가에 가깝게 생활하기 쉽다. 사위는 이제 딸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한 가족원이 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위, 장모 간, 모녀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장모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인 남성들의 전화도 많이 늘다. 이제 사위는 친가 중심의 가족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딸은 친정과 시댁에 모두 신경 쓰며 남편과 친정 부모간의 관계를 잘 조절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 장인. 장모는 지나친 간섭 말아야 아무리 내 딸이 귀하다지만 사위의 행동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피해야 한다.

아내가 지나치게 친정과 밀착돼 있을 경우 남편은 자신이 소외됐다고 느낀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장인과 장모는 독립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사위와 딸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2. 아내의 가출 유형

가정주부의 외도나 카드 빚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아내의 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30~40대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있다.

* (2003년-상담통계) 총 2,819건 - 부부문제 1,714건 중

아내의 가출 857건

아내의 외도와 이혼요구 575건

아내의 카드 빚,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282건

전화상담에서 2억원이 넘는 신용카드 빚을 지고 집을 나간 아내를 찾는 남편과 직장의 연하 미혼남과 바람을 피우다가 집을 나간 아내를 찾는 사례들이 많다. 또 외도 한 아내를 용서했지만 불륜의 장면이 떠올라 견딜 수 없다는 사례도 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남편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의 외도를 용서해주는 경우가 많다.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겪는 정신적 고통이 훨씬 심하다. 용서해준 남편을 여러 번 저버리고 가정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

3. 아내의 알콜 중독

상담통계 중 부부문제 상담건수는 1582건 중 '아내의 술 문제'를 토로한 상담은 102건이었다. 전체 상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지만, 아내의 술 문제 때문에 상담전화를 건 숫자는 2000년 29건, 2003년 5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술 취한 아내는 주로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고, 남편들이 참다못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 간혹 만취 상태의 아내에게 맞았다고 호소하는 전화도 있다.

VIII. 2004년

1. 가정문제에 장모가 이혼에 더 적극적...

상담사례 중 장모와의 갈등을 호소하며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 사위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딸에게 잘하지 못하면 장모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갈등이 있을 때 장모가 개입해 사위를 무릎 꿇리고 훈계를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시댁 식구와 남편에게 억눌려 살아왔던 40, 50대 여성들은 귀한 딸만큼은 자신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위가 조금만 잘못해도 딸보다 더 발끈 화를 내고 먼저 이혼을 입에 담는다.

요즘 30대 결혼한 남성들의 상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장모와의 갈등이라고 말한다. 사위를 손님 대접하는 시대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시켜 키운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딸네 살림까지 해주는 장모들은 더불어 사위에게도 당당하다. 딸이 처가 살림을 도와 주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거기다 딸이 사위보다 수입이 많으면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사위가 찾아와도 부엌에서 나가보지 않는 일도 많다.

그럴 때면 남성들이 예전처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가정이나 처가에서 대접만 받기를 바라면 안 되는 현실을 이해시키려 노력한다.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요구 당한 남성을 위한 집단프로그램도 한다. 아내의 배신에 치를 떨고 장모의 압박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요즘 남성들의 현주소이다. 경제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딸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사위들이 이혼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과 친정부모가 이혼에 더 적극성을 띠는 것이 최근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런 현상을 여성의 사회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그들에 가려져있던 친정엄마의 역할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장모-사위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 팽배하던 시어머니-며느리의 갈등과 많은 부분 비슷하다. 아들을 낳지 못해 구박받거나 혼수가 적어 소박당하는 며느리들의 과거는 아내의 외도에 분노하고 경제력을 상실해 무시당하는 사위들의 현재에 고스란히 투영된다. 고부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못된 시어머니가 부각되듯이 장모-사위의 갈등에서는 드센 장모가 악역으로 비치는 것도 닮은꼴이다. 그런 영향인지 상담에 응한 사위들은 장모를 냉혈한 가해자로 묘사한다.

■ 시어머니-며느리 갈등과 매우 비슷

무난하게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사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한다. 홀로 된 장모를 모시고 3년째 살고 있는 7씨의 경우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있지만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처가살이를 결심했다.

처가살이라고 하지만 1층과 2층에 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장모가 때때로 아이도 봐주고 밑반찬도 나눠주는 등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준다는 면에서는 대 만족이지만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남성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적군 진영'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때가 많다"며 "이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언제 한번 크게 폭발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고백했다.

남성들은 이런 고민은 시댁에 살면서 잠재적인 고부갈등을 안고 사는 여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

2. 가정서 내몰리는 아버지

여성의 맞벌이, 여성의 다양한 삶에 대한 기대치 상승, 남성의 느린 의식변화 속도 등이 맞물려 특별한 문제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40대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가족으로부터 내몰림을 당했다고 울음 섞인 호소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인의 불륜, 부인의 가출, 부인의 이혼요구, 부인의 폭력, 장모와 사위의 갈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돈과 경제'가 갈수록 핵심적인 원인이 되면서 남성이 해고를 당하거나, 경제적 능력을 잃는 순간 이혼을 요구받는 경우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전화'에 50대 중반의 사례자가 찾아왔다. 지난해 퇴직한 그의 얼굴에는 그들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는데, 경제력을 상실하고 나니 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아내 요구로 퇴직금 중 절반을 떼어 가게를 차려주었더니 몇 달 후부터 남편을 가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별거할 것을 요구했다. 급기야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얻어 나갔다. 남편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왜 가장인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전통적인 가부장권의 붕괴에 대한 한국 남성의 의식이 짧은 기간 내에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남성도 상당수다. 특히 갈등과 괴리감을 느끼는 연령대는 40대 이상이다. 어려서부터 사회적-제도적-교육적으로 남성 중심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탓이다.

IX. 2005년도: 아내에게 구박 당한다

남성의 전화를 찾은 남성은 아내가 월급도 많고, 아파트도 아내 명의로 돼 있다. 경제권을 아내가 쥐다 보니 10년 동안 맞고 살면서 따져보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남편들이 아내의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가정 내 경제적 주도권을 쥐면서 가장들이 기 죽어지내고 있는 것이다.

매 맞는 남성이 매 맞는 여성보다 소수이긴 하다. 하지만 계속 숫자도 늘어나고 연령대도 폭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성들이 하소연할 곳도 마땅찮고, 쉼터도 없다. 아동, 여성, 노인복지는 있어도 남성복지는 없다.

매 맞는 남편들의 대부분은 아내의 등쌀에 재산까지 다 내준 경우가 태반이다. 급기야 참다못해 이혼을 요구하면 '집에서 나가라. 재산은 못 준다'는 대동소이한 협박을 듣게 된다.

과거에는 여성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 남편의 폭력을 참고 견뎠다면, 이제 상황이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다. 매 맞는 남편의 숫자가 매 맞는 아내의 숫자만큼 많아질 때가 곧 올 것이라 내다 본다.

■ 가정을 지키려는 남자들

여성들이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 매 맞는 남편들도 마찬가지다. 남편들의 성격이 소극적이라 결단을 못 내리고 여성보다 더 이혼을 어려워한다. 경찰에 신고한 남편도 있는데 되레 '못난 사람' 취급만 받았다고 하소연한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대화까지 단절되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이혼요구 당한 상태에서 자살충동까지 느낀다는 40대 남성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담통계는 1,479명이다. 40, 50대가 대부분인 상담자들이 털어놓은 고민은 경제력 상실이나 부인의 외도에 따른 불화, 가정 내 소외감 등이 주를 이룬다.

그 동안 남성의 전화를 통해 위안을 얻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은 남성만 해도 연간 2천여명. 특히 IMF 경제대란 이후 부부갈등, 가정문제 등으로 인한 남성들의 고민은 놀라울 정도로 급증했다.

가부장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남성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닥쳐 온 변화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물론 남녀 불평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남성들의 고통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위기와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여성보다 훨씬 떨어져 고통이 배가 되는 것 같다.

한국 남성이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극심함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일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친구 관계 등 삶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소외감에 시달리는 남성이 급격히 늘고 있다.